



# 나는야 꼬마 문어 꼬몽이

글 박현정 그림 이수현  
크기 168\*220mm 쪽수 96쪽 값 13,000원  
펴낸날 2023년 10월 18일  
펴낸곳 길벗스쿨 대상 초등  
ISBN 979-11-6406-573-8 (73810)

문의 나고은  
(02-330-9894 / goeun120@gilbut.co.kr)  
검색 키워드 초등, 저학년, 국내창작동화, 동화, 모험, 우정,  
문어, 바다, 환경

ISBN	도서명(상품명)	인증유형	주의사항	사용연령	제조일	제조국
9791164065738	나는야 꼬마 문어 꼬몽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없음	8세 이상	2023.10.18.	대한민국

##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바다 밖이 궁금한 꼬마 문어 꼬몽이의 짜릿하고 신나는 모험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길벗스쿨의 새 창작동화 시리즈 ‘이야기새싹’의 첫 권이 출간되었다. 다정하고 용감한 꼬마 문어 꼬몽이와 친구들의 육해공을 넘나드는 이야기 세 편을 담았다. 꼬몽이는 인간 몰래 배 위에 올라가고, 수박을 구하기 위해 육지를 탐험하며, 날개 없이 하늘 날기에 도전한다. 독자들은 꼬몽이의 모험을 통해 유쾌한 상상에 빠지면서 어떤 일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날 것이다.

이 책은 처음 동화를 읽는 어린이도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에 걸맞은 의성어, 의태어 표현을 다양하게 담아 리듬감을 느끼며 읽을 수 있다. 이수현 그림 작가의 유쾌하고 발랄한 그림이 더해져 문어 삼총사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 1. 줄거리

꼬마 문어 꼬몽이는 날마다 바쁘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재밌거리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꼬몽이에게는 바다속 세상도 비좁다. 급기야 꼬몽이는 바다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배 위에도 올라가 보고, 수박밭에도 가 보고, 하늘도 날아 볼 생각이다. 꼬몽이 친구 달망이와 빠꼼이는 위험하다고 말리지만, 꼬몽이는 두렵지 않다. 누구보다 모험을 좋아하고 용감한 문어이기 때문이다. 꿈 많은 꼬몽이의 땅과 하늘을 오가는 멋진 모험이 시작된다.

## 2. 책 소개

### ■ 천하무적 매력 만점 문어가 나가신다!

####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문어 캐릭터의 탄생

여덟 개의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변장에 능한 문어는 바다에서 가장 영리한 생물 중 하나로 꼽힌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할 줄 알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학습도 한다.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재능 때문에 문어는 다양한 매체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로 활용된다.

《나는야 꼬마 문어 꼬몽이》는 꼬마 문어 꼬몽이가 문어 친구들과 함께 용감한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저학년 동화다. 박현정 글 작가는 어릴 적 다큐멘터리에서 문어가 수박을 바다로 가져가는 장면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꼬몽이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거뜬히 해내는 꼬몽이는 바다에서 가장 용감한 문어다. 겁 많은 달망이, 모르는 게 없는 빠꼼이까지 개성 넘치는 꼬마 문어들은 과연 어떤 모험을 펼치게 될까?

### ■ 이웃과 친구를 위해 용기 낼 거야!

#### 무모해 보이지만 이유 있는 모험

꼬몽이는 또래 문어보다 몸집이 작지만, 호기심과 모험심만큼은 바다에서 제일이다. 설 새 없이 새로운 놀이를 찾아다닌다. 꼬몽이 친구 달망이와 빠꼼이는 그런 꼬몽이를 말리기 바쁘다. 인간들 몰래 배에 오르겠다는 것도 모자라 수박밭에서 수박을 가져오자느니 하늘을 날겠다느니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니 말이다. 하지만 꼬몽이를 아끼는 친구들은 못 이기는 척 꼬몽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꼬몽이가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하는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천동호에 가려는 건 꼬몽이의 돌고래 친구 아리가 천동호에서 다른 돌고래인 천돌이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천동호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꼬몽이는 천돌이를 만나고 싶다는 아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천동호에 오른다. 수박을 따려는 것도 기운이 없는 몽게 아줌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하기 위해서이고, 하늘을 날려는 이유 역시 길 잃은 새끼 거북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현정 글 작가는 꼬몽이를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꾼’이라 소개하며 어린이 독자들에게 ‘꿈은 몸집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 친구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어!

#### 동물에게 배우는 더불어 사는 세상

《나는야 꼬마 문어 꼬몽이》에는 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동물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서로 도와주며 조화롭게 살아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만든 시설 때문에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돌고래 아리가 부딪친 천동호는 돌고래 관광 선박으로, 실제로 이런 돌고래 관광 때문에 많은 돌고래들이 다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바다거북들이 바다로 돌아오지 못한 것도 인공조명 때문이다. 파도를 보고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육지에 설치된 조명이 파도보다 밝아 바다와 점점 멀어진 것이다.

아리가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천동호를 망가뜨리는 꼬몽이, 목숨을 구해 준 꼬몽이에게 보답하기 위해 비행 연습을 도와주는 독수리, 꼬몽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기꺼이 모험길에 함께 오르는 달망이와 빠꼼이까지, 혼자 잘살기보다 더불어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어떻게 동물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이다.

### 3. 책 속으로

꼬몽이가 눈에 힘을 주며 큰소리를 탕탕 쳤어요.

“천동호에 가서 별 목걸이를 한 돌고래를 데려올게.”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면 바로 초고추장 목욕이라고!”

빠꼼이가 졸졸 따라오며 겁을 줬어요. 그 말에 겁을 잔뜩 먹은 건 달망이었어요.

“그래, 꼬몽아.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

(본문 13쪽 중에서)

“그래, 결정했어! 수박이 딱 좋아. 몽게 아줌마한테 저걸 선물하자. 아줌마가 수박을 먹으면 틀림없이 힘이 날 거야.”

꼬몽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자 달망이의 눈이 수박만큼 커졌어요. 빠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본문 42쪽 중에서)

꼬몽이는 모험을 좋아해요. 그래서 꼬몽이는 언제나 바빠요. 여덟 개의 팔과 거기 붙어 있는 빨판들도 덩달아 쉴 새가 없지요. 움켜쥐고 맛보고 탐색하느라 말이에요.

덕분에 팔 힘은 나날이 세졌어요. 오른쪽 세 번째 팔과 거기 붙어 있는 456번째 빨판은 특별히 힘이 세요. 가끔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죠.

(본문 70-71쪽 중에서)

꼬몽이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난다는 건 멀리 보는 거구나.”

세상이 참 넓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험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요.

(본문 91쪽 중에서)

### 4. 목차

1. 천동호에서의 하룻밤
2. 수박이 딱 좋아
3. 하늘을 날기로 했어  
작가의 말

### 5. 저자 소개

#### 글 박현정

어른들을 위한 글을 쓰다가 좀 더 신나고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 눈높이 아동문학상, 2014년 푸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 《승승 형제 택배 소동》《에이스 김준수》《할머니의 자리》《모퉁이 하얀 카페 심쿵 레시피》《백 년 만의 이사》《우리들의 빛나는》《파트너 구하기 대작전》《다시 만난 내 친구》 등이 있습니다.

#### 그림 이수현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한 그림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우주 택배》《해파리 버스》가 있으며, 그린 책으로 《수상한 알약 티롤》《수박 행성》《그때, 상처 속에서는》《원자와 분자: 쪼개고 또 쪼개면》이 있습니다.